

“얀센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낮아”

뉴욕대 연구진 “추가접종 필요” 얀센·화이자 접종자 혈액 비교 “모든 백신 두차례 접종 효력 커”

존스홉킨스(J&J)의 코로나19 백신이 델타 변이나 랩다변이를 막는 게 원형 바이러스보다는 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뉴욕대 그로스먼 의과대학 니세니얼 랜도 박사 연구진은 두 차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맞아 면역이 형성된 17명의 혈액 표본을 J&J의 얀센 백신을 한 차례 맞은 10명과 비교했다.

그 결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은 베타, 델타, 델타플러스, 랩다

변이에 대한 항체를 “보통” 수준으로 생성했으나, 얀센 백신은 이런 변이에 대한 항체의 중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얀센 백신과 기전이 비슷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한 차례 접종시 델타 변이에 의한 증상 발현을 막는데 33% 정도의 효력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연구는 J&J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J&J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부문 자회사인 얀센의 백신이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이들에 강력한 예방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랜도 박사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 역시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백신들처럼 2회차 접종이나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메시지는 얀센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하거나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효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백신 전문가들은 다른 백신들도 대부분 두 차례 접종 시 더 효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예견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웨일코넬의과대학의 존 무어 박사는 NYT에 원숭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역시 두 차례 접종할 때 효력이 훨씬 컸다면서 “나는 얀센 백신도 2회 접종 백신이라고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연구를 주도한 팀이 백신 제조사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연구진이어서 더 신뢰가 간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등록됐으며 아직 동료 평가(피어리뷰)를 거치지거나 과학저널에 출간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20일 중국 중부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에 내린 폭우로 자동차 한 대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멈춰 서 있다. 이날 정저우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에 갇힌 시민 12명이 숨졌으며 주민 10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물이 목까지 찼다”... 中정저우 폭우로 지하철 승객 12명 사망

1시간 202mm 사상 최고 강우 댐 붕괴 위험에 인민해방군 투입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에서 기록적 폭우로 12명이 숨졌으며 20만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저녁 정저우의 지하철 안에 물이 차 올라 승객 500여명이 갇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상자도 5명 나왔다.

승객 리모씨는 다상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일 오후 6시50분께 지하철 5호선이 갑자기 운행을 멈

췌고 폭우로 인해 지하철 안으로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씨에 따르면 승객들은 처음에는 다들 별로 신경 안 썼으나 물이 좌석 높이까지 차오르자 긴장하기 시작했고, 오후 7시 20분께는 수위가 승객들의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다. 리씨는 “키가 작은 승객은 물이 목까지 찼다”고 전했다.

오후 7시30분께 차량 안의 산소가 점점 희박해져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고 스마트폰으로 현장 동영상을 찍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리씨는 말했다. 또 다른 승객 바이모씨는 많은 승객이 산소 부족 증세를 보였으며 한 입산부는 혼절하기까지 했다고 CCTV에 밝혔다.

정저우시는 지하철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 정저우시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식수 공급이 끊겼다.

정저우에서는 20일 오후 4~5시 1시간 동안에만 201.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는 1975년의 198.5mm를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정저우의 누적 강수량은 617.1mm에 이르렀는데 정저우의 연간 평균 강수량 640.8mm에 근접하는 수치다. 또 허난성에서는 이환현의 댐에 균열이 생겨 붕괴할 위험이 높아져 주민해방군 병력이 긴급 투입됐다.

이번 폭우는 태풍 ‘인파’가 만든 비구름대에 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에 슈퍼컴도 굴욕 “폭염·홍수 예측에 무용지물”

獨 홍수·북미 폭염 예측 참패 “인류, 긴급대응 곤경에 빠져”

유럽과 미국을 기습한 극단적 기상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내자 기상예보 부실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특히 기상현상의 규모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분석하지 못하는 기상 당국의 슈퍼컴퓨터가 애물단지가 돼가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CNN에 따르면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독일 대홍수, 북미 서부 폭염을 예측참패 사례로 지적한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해 극단적 기상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발생한 재해가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례 없는 대규모 피해를 내지는 전혀 몰랐다. 특정 지역이 어떤 빈도로 어떤 수준의 극단적 기상을 겪을지 측정해야 대처가 가

능하지만 그런 분석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지구과학센터의 마이클 E. 맨 소장은 최근 몇 주 동안 기상분석 모델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실제 기상분석을 보면 모델에서는 예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뚜렷한 극단적 기상이 실시간으로 불쑥불쑥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예보의 토대인 슈퍼컴퓨터의 역량이 기후변화 변수를 연산할 정도로 양호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에 따라 독일 대홍수나, 북미 폭염 같은 재난을 예보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지닌 기상분석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기상 물리학자인 팀 팔머 교수는 엑사스케일(exascale) 컴퓨터를 둘러싼 글로벌 기상분석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엑사(exa)는 10의 18제곱으로 엑사스케일 컴퓨터는 1초에 그만큼의 연산을 반복할 수 있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말한다. /연합뉴스

몰디브 관광 회복... 올 관광객 지난해 넘어서

확진자 감소 여행 규제 완화

휴양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의 관광 산업이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21일 신화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몰디브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몰디브 방문 관광객 수 55만 50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병 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몰디브의 관광이 올해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몰디브 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섬 간 국내 여행 규제를 일부 푸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만 하더라도 하루 100명을 넘지 않았던 몰디브의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초부터 폭증했다.

5월 20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194명(이하 월드오미터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몰디브의 인구가 55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확산세였다. 이후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도입되면서 확산세는 꺾였고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200명대로 줄었다. 이날 누적 확진자 수는 7만6188명으로 집계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외국 관광객 입국을 막았던 몰디브는 같은 해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등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 커피 산지 한파... 커피 원두값 급등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가뭄에 이어 한파까지 닥치자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커피 선물 가격이 한파로 인한 브라질의 커피 원두 생산 감소 우려로 한때 7.7%나 급등,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초 극심한 가뭄에 이어 최근 브라질 커피 산지에 한파까지 몰아쳤으면서 여기에 라니냐(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하락에 따른 기후 현상)까지 예고돼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정보업체 루탈 클리마에 따르면 이날 브라

질 커피 산지의 기온은 수시간 동안 섭씨 0도 밑으로 내려갔으며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주는 1994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번 한파는 하루 더 이어진 뒤 끝났으나 29일쯤 다시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여기에 올해 초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우기마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커피 생산 주기로 볼 때 내년은 생산량이 많아 하지는 않지만 가뭄과 한파 여파로 생산량이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라비카와 로부카 원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